

## 단 신

# 결근과 관련된 상병 및 작업위험

이 경 중

결근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Leigh JP는 1989년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9월호에 결근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병 작업위험에 관한 연구를 기고하였다. 결근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생리적인 건강문제와 작업위험으로 크게 분류하여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특별한 상병이 가장 중요한 결근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1977년 미국의 Quality of Employment Survey(QE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단면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들은 1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1,515명의 임금근로자들이었다. 이 자료는 오래되긴 했지만 양질의 자료이며 어느 자료보다 작업조건과 상병에 관한 폭넓은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에게 결근, 질병, 손상, 작업조건에 관해서 4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1) 최근 3년간 결근을 가져온 질병이나 작업에 관련된 손상이 있었는지, (2) 36개항목의 상병을 제시하고 관련된 상병을 선택하게 하고, (3) 얼마나 오래 결근을 하였는지, (4) 17개의 작업조건을 제시하고 상병이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작업조건을 선택하게 하였다. 36개의 상병 및 17개의 작업 위험을 직업에 따라 분류 기록하였다. 직업은 미국의 센서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류인 전문인과 경영인, 서기 및 세일즈맨, 기능공과 인부 및 직공, 그리고 서비스업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결근은 기능공과 인부 및 직공에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역시 가장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밝혀졌다. 반면에 서기

및 세일즈맨은 가장 위험이 적은 작업조건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근의 가장 흔한 원인 상병은 요통으로서 29%를 차지하였다. NIOSH에서는 1982년 미국의 직업과 관련된 다빈도 상병으로서, 폐질환, 근골격계 손상, 직업성 암(폐암 제외), 골절, 심혈관계 질환, 생식장애, 신경독성학적 장애, 소음, 피부과적 문제, 심리장애를 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요부손상, 골절, 감기 또는 독감, 좌상, 타박 또는 추락, 관절의 염증, 화학적 화상, 염좌, 심장질환으로 나타나 NIOSH의 상위 10개 상병을 거의 포함하는 양상을 보였다.

17개의 작업 위험을 직업에 따라 그 심각도를 고려한 결과 위험한 작업방법 및 기계, 과중한 부담, 나쁜 공기, 인적 실수, 스트레스, 소음 등이 상위 서열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측면에서의 해결책이 마땅하지 않아 큰 효용이 없는 것 같다. 위험한 작업방법이나 기계는 전체 결근 일수 증가상 많은 원인이었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못해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다시 남녀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자에게 있어서 다빈도상병은 좌상, 요부손상, 감기나 독감 등인데 비하여 남자에서는 요부손상, 골절, 화학적 화상 등이었다. 한편 작업위험에 있어서 여자에서는 익숙하지 못한 작업, 위험한 작업방법, 스트레스가 상위서열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남자에서는 위험한 기계, 과중한 부담, 위험한 작업방법 순이었다. 이는 남자근로자가 여자보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남녀비를 교정한 후에도 결근의 비는 남자가 2배나 많았다.

연구자는 미국의 결근 통계자료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결근이 많다고 보고된 것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가 36개의 손상에 대해서만 질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자료가 12년전 것이라 최근 직업을 가진 여성의 인구가 증가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긴 설문에 응답자의 반응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 등을 제한점으로 들고 있다.